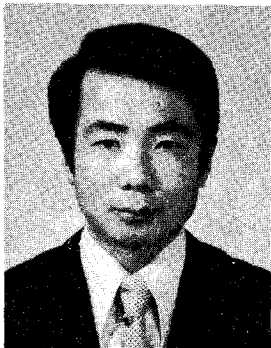


축산관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래의 불확실한 농업상황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개별농가가 영농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물론 정부의 농업정책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가능한 관련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상황을 예측하고 널리 홍보하는 과정이다



문 기 한

축협중앙회 조사부
축산관측과장

*관측이란 무엇인가

일반적 개념

넓게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주변만 하더라도 개개 가정에서 생활실체를 하거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또는 “금년에는 풍년이 들 것이다”라든지 “내년에는 소를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말할 때도 생각하여 보면 이면에는 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는 못할망정 미래를 나름대로 전망하는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주변사정이나 정세판단을 보다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할 때 일반적으로 “관측”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측과 유사한 말에 “예보”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보란 천기(天氣)처럼 어떤 인위적인 조건을 가하여 변경시킬 수 없는 미래현상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관측과는 엄격히 구분되고 있다

관측의 정의

농업분야에서 주로 행하여 지고있는 관측의 정의를 요약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농업상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개별농가가 영농계획수립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물론 정부의 농업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가능한 관련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또 널리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관측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하기란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대신 행하는 것이 어느나라에서나 일반적이다.

관측의 목적

이상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 농업관측의 목적이라면 국가에 따라서 또는 시대적인 배경에 따

라서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농업의 미래 상황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측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생산농가는 영농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과정에서는 시장출하를 조절함은 물론 수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며 정부에서는 장단기 농업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관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 국

제 1차 세계대전 후 일반경제의 불황속에서 농업도 극심한 공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22년부터 시작된 농업관측사업은 농민들에게 농작물의 식부(植付) 및 판매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종래의 기술지도적 농업정책을 경제지도적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25년 이후 한때는 “농업관측이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여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원흉”이라는 등 강력한 비난에 부딪히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연방정부 농무성 농업경제국에서 품목별로 농업관측안을 작성하여 농업관측심의회에의 조정을 거쳐 일정한 날자와 시간에 맞추어 공포하고 있는 외에도 매년 1회이상 연방농업관측회의를 소집하여 대대적인 공개토론 형식으로 관측결과를 심의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관측결과가 발표되면 주 정부에서는 다시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한 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보급하고 있다.

현재 미농무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관측의 대상품목은 23개종에 달하며, 대부분의 품목마다 연간 4회이상의 홍보 소개용 관측보를 발간, 세계적인 배포망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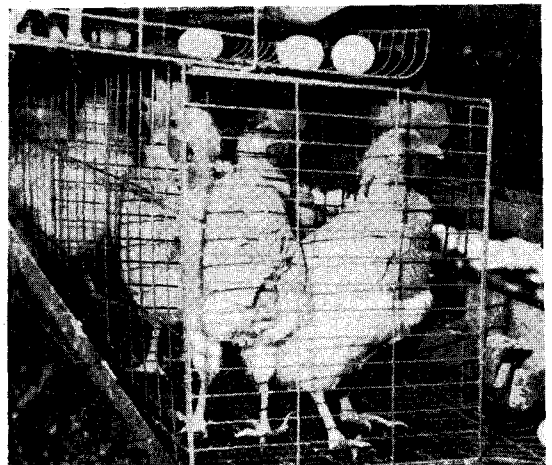
전후 일본의 농업경제가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가면서 농가의 합리적 영농계획수립은 물론 농가 스스로의 시장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미농무성의 권고에 따라 1952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관측사업은 초기에는 농업경제국 통계조사과에서 실시하였으나 1961년부터는 대신관방조사과에서 품목별 단기관측을 실시하고 장기관측은 기획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관측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조사과에서 식량작물, 원예 및 공예작물, 청과물, 축산물, 잡사류 등에 관하여 작성한 단기관측안은 농림수산통계 관측심의회에서 그리고 기획실에서 작성한 장기관측안은 농정심의회에서 각각 심의, 검토되어 조정되며, 최종 관측결과는 농업관측설명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설, 보급되며 “농업관측”이라는 별도 간행물로 발간 배포하고 있다.

대 만

제 2차대전 후에 급속하게 발전한 상공업과의 상대적으로 농업이 침체하게 되자 농업경제의 부진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업개발에 치중하면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1972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이 대만성 경제부 농림국 협조하에 농촌부흥회(우리 나라의



농협과 같은 기능을 함)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측대상 품목으로는 5개 식량작물과 4개 과실류는 물론 돼지까지 작물재배시기 및 생산 시기에 따라 연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생산관측을 하고 있으며 연도관측은 매년초 농업관측안을 작성 공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는가?

연 령

우리나라의 농업관측은 1962년 5월에 국가 재건최고회의 지시각서에 근거 농수산부 농정국에서 착수준비를 하다가 여러가지 여건의 불비로 1965년에는 농협중앙회에 이를 위촉하게 됨에 따라 농협조사부에서는 관계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전문인원을 해외에 파견, 훈련시키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67년부터는 주요 경종작물에 대한 식부예정면적조사부터 실시하여 1976년에 다시 농수산부로 이관되기까지 매년 거의 전경종작물에 대하여 연도관측안을 작성하였으나 관측결과와 발표시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매년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농업관측 사업이 농수산부에 다시 이관되자 국립농업 경제연구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업관측사업의 정상화를 꾀하였으나 1978년에 동연구소가 폐소되자 또 다시 농수산부 통계관실을 주축으로 하여 품목별로 분리 담당하는 등 담당기관이 자주 바뀜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부 통계관실

15개 경종작물에 대하여 식부의향조사를 하고 그중 12개 품목은 작황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관측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체 농산물에 대하여 수요 및 가격분야관측만 담당하고 있으나 역시 관측안을 대외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부

1976년 농수산부로 농업관측사업을 다시 이관한 후에도 10개 성장농산물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식부의향조사와 작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외부에 발표없이 조합 및 계통조직의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축협중앙회 조사부

1979년말의 극심했던 양돈불황을 경험한 후 전체가축 및 축산물을 대상으로 미래의 경기전망을 미리 양축농가에게 예보해 주므로써 양축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자 80년 2월부터 축협중앙회에 축산관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매분기마다 축산경기를 관측, 그 결과를 양축농가는 물론 축산관련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그동안 주기적으로 겪어오던 양돈 불황을 피해가는 등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하고있는 축산관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착수배경

1979년 하반기에 전례없이 극심한 양돈불황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미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있는 관측제도를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에 도입하여 미래의 축산경기를 사전에 예측, 홍보함으로써 생산 및 가격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자 1980년 2월부터 축협중앙회 조사부에서 축산관측 사업을 시작하였다.

관측목적

미래의 축산경기에 관한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관측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첫째, 양축가는 축산경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생산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축산물의 각종 유통관련자나 유통담당 기구는 그들의 마케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셋째, 축산정책을 입안시행하는 정부는 축산물의 장기적 수급계

획 및 장기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 정책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최적 배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 이 있다.

대상품목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축산물 중에서 도 생축과 가격면에서 안정성이 극히 요망되는 소 및 쇠고기, 돼지 및 돼지고기, 육계 및 닭고기, 산란계 및 계란을 그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다.

관측내용

대상 가축의 사육두수 및 시장출하에 관한 단기 전망을 비롯하여 대상 축산물의 장기수급량과 공급량 및 가격을 예측하며 해외축산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이나 축산물 수급에 관한 활동을 분석한다.

관측방법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도 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향과 현재를 근거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방법으로는

첫째, 통계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이 있고,

둘째는 해당분야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관련 상황을 직관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적 판단에 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로는 이상의 방법들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에 비추어 두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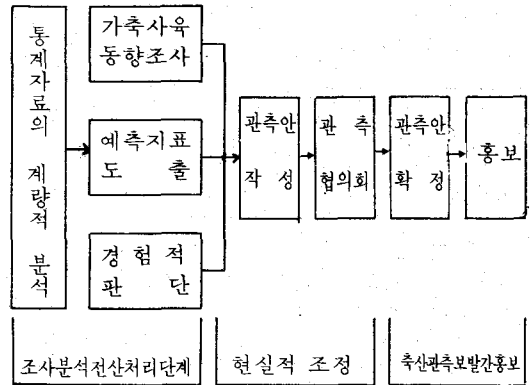
현재 축산관측에서는 세번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과거 축산물의 수급 조건이나 가격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에 관한 통계자료들을 전산처리하여 미래에 그러한 요인들이 변동했을 때 상당한 수급량이나 가격 수준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통계적 관측 모형을 도출한 후, 여기에 미래의 예상 요인들을 적합시켜서 해당 축산물의 수요



△축산관측은 축산물수급에 관한 활동을 분석한다

량, 공급량 또는 가격 수준을 예측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계화가 불가능한 질병, 기후조건, 지역성, 기호도 또는 정책요인들이 거의 고려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양축가들의 가축사육에 관한 의향을 조사분석하고 담당자의 직관적 판단등을 종합하여 축산관측 초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이상의 초안에서도 특정 소수인의 편견이 지배했을 수도 있으므로 축산에 관계하고 있는 양축가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관측협의회에 회부하여 현실적 감각을 다시 가미한후 비로소 관측안을 확정 홍보하게 된다.



*축산관측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가?

앞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축산관측사업이 목적하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축산물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을 미리 예측, 홍보함으로써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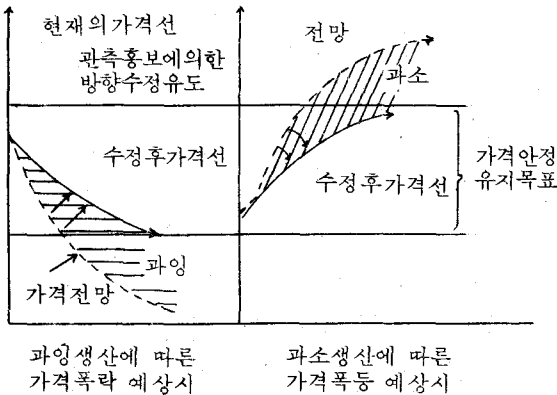
련된 각자가 스스로 조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축산관측은 일기예보와 분명하게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같은 관측결과라도 이렇대외에 발표할 때와 발표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발표를 않고 내부적 자료로만 활용하였을 때는 관측치는 사후 현실치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대외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을 때는 관련된 양축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입안자까지 각각 자기 입장에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관측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현실치와는 대부분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을 예측하여 홍보했을 때는 양축가들이 반사적으로 사육두수를 감소시키게 되어 예상되던 불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과소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등을 예측하여 홍보했을 때는 양축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리게 되어 가격파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축산관측사업을 통하여 관련 각자의 스스로의 조절능력을 발휘시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유지를 기대하는 것이다.



*** 축산관측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축산관측사업의 주인의식

축산관측은 각종 통계자료 모집을 위한 조직체제와 분석능력을 갖고있는 축협중앙회에서 대

신하여 미래의 불투명한 축산경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스스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중간 유통기구는 마케팅 활동을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관측사업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축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축산관측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축산관측 결과를 발표하면 수많은 양축가를 비롯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관측치는 현실치와 일치할 수 없다.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하고있는 축산관측 사업처럼 관측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도 그 결과가 현실치와 일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축산관측사업에 적극호응

특정생산에서도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생산하여야만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수십만농가가 함께 사육하고있는 축산에서는 나 혼자만이 무조건 사육두수를 늘인다고해서 그것이 곧 자기만의 소득을 증대시켜준다고는 볼 수 없다.

축산관측사업에 다같이 적극 호응하여야만 축산경기를 안정시켜 우리양축가 각자의 소득이 다같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축산관측사업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호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양계산업의 발전은
양계인 모두의
주인의식으로 부터**